

문학 개념어 정리

- 2011학년도 ~ 2015학년도
평가원 기출 선별

실전적 문학 개념어 - 심프

1. 자료 소개

이 자료는 3등급 이하의 중·하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입니다. 4~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물론 기본적인 문제풀이 태도를 갖췄다고 볼만한 학생들도 문학 개념어를 묻는 문제에 호되게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개념이 덜 잡힌 상태에서 일반적인 감상 방법만 배운 이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개념 자체를 낫설어 하는 경우가 많구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렇죠. 개념어 공부를 하면됩니다!

그럼 모든 개념어 문제들을 빠짐없이 맞힐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장담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개념어의 사전적인 정의를 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맞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

‘개념어의 정의를 숙지하는 것은 물론, 실제로 출제된 작품에서 개념어를 묻는 문제를 살피고, 문제에 대한 판단 근거를 ’직접‘ 기출 지문에서 찾아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① 문제에서 물어보는 방식 익히기

② 실제 지문에 적용해보는 연습

입니다.

중하위권 학생들을 많이 보면서, 문학 개념어 문제에 대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당연히 여기고 심하면 우습게 여기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수업하던 학생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이 자료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위에서 말한 ①, ②, ③번을 만족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기출에서 등장한 다양한 개념어들을 담았고, 그런 개념어들은 지문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스스로 개념어를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된 학습지와 그 부분에 대한 해설이 담긴 해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이 자료는 ‘정확한 개념어의 사전적 정의’를 담지 않습니다. 오로지 ‘실전적인’ 선지 판단에 초점을 맞춘 자료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개념어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께는 부적합한 자료입니다.

실전에서의 애매함을 최대한 줄이고 ‘뇌절 방지용 행동 양식’을 갖추는 데에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께는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자료 사용법

가. 주 대상 - (개념이 약한)3등급 ~ 5등급

1. 학습지에 있는 선지를 확인하고 해당 개념을 확인한다.
2. 알고 있는 개념이라면 자료에서 말하는 판단의 행동 양식에 주목한다.
3. 모르는 개념이라면 스스로 정의를 찾아보고, 필기한 후 해설지를 확인한다.
4. 나만의 개념노트를 만들고 해설지와 함께 다독(多讀)한다.

나. 1등급 ~ 3등급

해설지를 프린트하여 다독(多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헛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보충한다.

다. 5등급 미만

다른 개념 강의 및 학습 도서를 기반으로 이 자료를 병행한다.

*자료에 대한 질문은 인스타그램 <@sympekle>나 쪽지로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 말 그대로 대구법이 쓰였는가 안 쓰였는가를 묻는 겁니다. 대구법이 뭔지 모르면.. 얼른 찾아봅시다.

※ 대구법 : 한 요소가 동등한 중요성과 비슷한 표현법을 가진 다른 요소와 균형을 이루도록, 대등한 개념들을 구·문장·문단에 배열하는 것.

② 사물에 인격을 부여해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보자마자 의인화를 떠올리면 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사물이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이나, 인간의 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근거가 나옵니다.

③ 도치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 말 그대로 도치법이죠? 앞 뒤 순서 바꾸기! 문장 구조가 뒤바뀐 것을 찾아주면 됩니다.

④ 감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일반적으로 감각적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에서는 독백적 어조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혼자 말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청자가 없는 상황, 말을 건네는 방식, 대화가 아닌 것

※ 원래 독백은 '회곡'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다른 갈래의 작품에서도 '독백적 어조', '독백적으로' 이런 식으로와 같은 워딩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그냥 서술자·인물, 화자의 혼잣말 정도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⑤ (가)와 (나)에는 모두 시상을 집약하는 소재가 나타나 있다.

→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화자의 정서 따위를 하나로 드러내 주는 소재를 찾는다는 느낌으로요!

28.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1인칭 or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인지 파악하면 됩니다.

39.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② 과거 사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드러나 있다.

→ 특정 사건(이 선지에서는 과거 사실이겠죠?)에 대한 후회나 반성이 드러나는지 찾아봅시다.

③ 고사(故事)를 활용하여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특정 대상을 비꼬면서 '비판하는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 풍자 : 대상의 결점이나 약점에 대해 과장, 왜곡, 비꼬는 방법을 사용해 웃음을 유발하는 방법.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웃음을 통해 대상과의 거리감을 넓혀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ex. 흥부전의 놀부

⑤ 특정 장면에 초점을 맞추어 대상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특정 장면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특정 장면'만' 혹은 특정 장면 '위주로' 보여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시면 됩니다. 우리가 웹툰이든 영화든 전투씬이 나오면 다른 씬에 비해서 분량이 많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중요하거나 흥미로운 '특정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지!

→ 해학 = 웃기게 표현하는지 생각해봅시다. 사전적 정의는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 해학 : 언어유희, 상황에 맞지 않는 말들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방법. 대상과의 거리감을 좁혀 연민의 감정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ex. 흥부전의 흥부

47.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로 적절한 것은?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 답정너 물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문형 어미 찾고 그게 짚으로 물어보는 건지 아닌지 파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의를 물어보면 무조건 의문형 어미부터 찾겠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② 독백을 통해 인물의 내면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독백은 혼잣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청자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내면적 성찰은 그냥 반성하는 느낌이면 충분히 허용 가능합니다. 내가 잘했나 못했나.

③ 상징적 소재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 소재가 그냥 그런 소품 느낌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거나 기능을 하는지 확인합니다. 그게 있으면 상징적 소재라고 봐도 무방해요.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낚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여기서 '배'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배'라는 소재가 '화자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사실 '배' 그 자체는 사랑과 거리가 멀지만 여기서 화자의 사랑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시어나 대상이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거나 기능을 하면 상징적 소재로 볼 수 있습니다.

2011학년도 09월 모의평가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낸다.

→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이어야 합니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 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받은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 여기서 보면 나무가 잎을 피우는 움직임이 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막 밀고 올라간다'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올라갑니다. 움직임을 강하게 묘사하고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역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연의 1행은 '벌베채'가 여물어 가는 때라는 의미로 '산'과 '벌'의 계절적 배경을 드러낸다.

→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드러내면 계절적 배경입니다.

② 1연의 2행~3행은 '산'과 '벌'에 대한 경험을 청각적으로 제시한다.

→ 소리에 관한 시어를 찾으면 됩니다.

③ 2연과 3연은 '산'과 '벌'에서의 청각적 체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마찬가지로 소리에 관한 시어를 찾으셔야 합니다.

④ 4연은 '산'이 '별'과 상반된 공간적 의미를 지님을 드러낸다.

→ <대부분> '화자 vs ~ 화자' 혹은 '긍정 vs 부정'의 구도로 드러납니다. 화자가 지향하거나 지향하지 않거나, 화자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두 가지 구도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참, 역시나 문학에서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어둔 방'과 '또 다른 고향'은 상반된 공간적 의미를 지닙니다. 역시나 화자가 존재하는 '어둔 방'은 화자가 '가고자 하는' 공간인 '또 다른 고향'과 대비되는 공간입니다. 결국 화자는 '또 다른 고향'을 지향하고 있고, 그건 결국 현재 존재하는 '어둔 방'을 벗어나고자 한다는 뜻이니까요. 이처럼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나 아 니냐와 같은 방식으로 공간의 상반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16.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의 제목은 제재를, (나)의 제목은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제재는 주제를 드러내는 시어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제 의식도 결국 시의 주제와 연결되겠죠? 시를 지배하는 정서같은 느낌입니다.

② (가), (나) 모두 시어나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 반복이냐고 묻는 것이네요. 특정 단어나 구절, '다', '라'와 같은 어미가 '똑같이' 나와야 합니다.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짐짓 어진 생각만을 다듬어 지니셨고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
밤마다 사랑에서 저릉저릉 글 읽으셨다

→ 애는 '~한 누구는 ~했고. ~인 누구는 ~했다'라는 식으로 '비슷한' 문장 구조, 통사 구조가 반복되는 경우로 대구법이 사용된 것입니다. 시어나 시구 자체가 반복되진 않죠?

* 종종 교과서에서 '통사구조의 반복'을 반복법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헛갈리게 하지 생각하지 말고 반복법 안에 대구법이 있다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 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받은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

→ 아까 본 예시죠? 여기서처럼 시어나 시구의 반복은 말 그대로 한 번 더 그대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정말 '반복'인거죠.

③ (가)의 '정주 광산', (나)의 '정주 동림'은 화자가 경험한 구체적 공간이다.

→ 구체적인 지명 같은 게 드러나면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35.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무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아무런 연관성 없이 하는 말들이 정말 ‘아무말 대잔치’ 느낌이 나면 허용 가능합니다. 실제로 ‘와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네’ 이런 식으로 말해보거나 말하는 걸 들은 적 있으시죠? 그런 느낌입니다. 조금 있어 보이게 말하자면 서술에 개연성이 없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아 집에 가고 싶다... 그리고 보니까 내일 학교에 연예인 온다고 했는데 누구였지? 모르겠고 갑자기 배고프네... 치킨이나 시켜 먹을까?”

→ 이런 느낌으로요! 문학에서의 느낌을 알고 싶다면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② 사물의 외양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사실성을 강화하고 있다.

→ 겉모습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냐는 겁니다. 자세히, 사실적으로(보이는 대로) 묘사하면 객관적 묘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③ 찾은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서로 다른 사건들이 여러 개 제시되어야 합니다. 어벤저스 엔드게임을 보셨다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토르는 혼자 떨어져서 가오겔 친구들이랑 놀고, 스톤 찾으러 가는 나머지들도 각각 흩어져서 나오죠? 그 인물들이 처한 각각의 장면을 한 번에 보여주는데 아니라, 토르 보여줬다가, 아이언맨 보여줬다가, 앤트맨 보여줬다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서술합니다.

***높은 확률로 정답은 아닙니다.**

④ 인물들의 다양한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 쉽게 이해하려면 움니버스식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삽화는 큰 이야기 속에 있는 작은 이야기를 말해요. 마음의 소리 같은 느낌입니다. 조석 식구들의 이야기·서사를 매화 나눠서 보여주죠? 그런 형식이예요.

***역시나 높은 확률로 정답 선지는 아닙니다.**

⑤ 서술의 초점을 특정 인물이 처한 상황에 맞추고 있다.

→ 특정 장면에 초점을 맞추느냐와 비슷한 맥락인데, 그 초점이 ‘특정 인물’이 처한 장면이예요. 여기서 말하는 특정 인물은 일반적으로 주인공일 것이고 아마 시점은 1인칭 or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일 확률이 높겠죠.

이 선생이 누누이 들려준 말처럼 **시우**는 아무리 사태가 불리하다 하더라도 1년 미만 징역에 2년 집행 유예로 나갈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선생이 올린 항소가 고법에서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자, 자기만 억울하게 함정에 빠진 듯했고, 사모님은 물론 가족마저도 돈에 눈이 어두워 자기를 속임수에 이용하는 듯하여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중우 형 면회가 있고부터 그는 한결 새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시우야**, 일백삼십에서 또 오십만 원을 더 받았어. 네가 실행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일백팔십이 된 거야. 네가 우리 가족을 살린 거란 말이야. 그 돈이면 나두 공사판을 그만두구 장사를 시작할 수 있어. 너도 야간이라도 학교엘 나갈 수 있게 됐구. 참아 줘. 이걸 정말 면목이 없다만, 어떡허니. 그럴 수밖에 없잖니? 그저께 사모님을 만나 같이 네 애길 했더랬어. 전생애 다시 갚지 못할 빚을 네게 졌다면서 말이야. 네가 출감하면 운전수든 뭐든 다시 일을 시키겠다고, 월급을 올려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시우야, 이 형이 양심을 팔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돈으루 우리두 성공하여 옛말하구 살자꾸나. 정말 성공하여 남부럽잖게 될 때, 이 피눈물 나는 고생은 그때 가서 위로하자…….”

멀찌감치 선 간수 귀를 피해 귀엣말로 중우 형이 이렇게 말할 때, 두 형제는 함께 울었다. 시우는 검게 탄 형의 거친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았다. 철창 사이로 굳게 잡은 형의 억센 손이 떨리고 끝내 꺼억거리며 흐느낄 때, 시우는 여지껏 침묵한 채 참아 왔듯 몇 달을 참기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몇 달 감옥 생활을 이겨 내기로 결심했다.

오늘 아침, 녀 달 동안 집 안방과 다름 바 없는 안착지로 떠나게 되자 까닭 없이 마음이 설레 아침밥도 거르게 되고, 그제 공복과 더불어 한기를 가중시켰다. 시우는 연방 떨며 다시 중얼거렸다. 정말 겨울은 지금부터이고 고생도 시작인데 몸과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된다고.

“눈이 오면 날씨가 포근한 뱀인디 워찌 요렇게 차다냐. 이런 날은 개팔자가 켜이여.”

“글쎄 말이다. 동지도 그름이모 열매 안 있어 새해 아닌가 말이다. 그라모 햇수로 일 년 넘기는 긴데, 헤헤. 그렇게 햇수로 따져서 내보내 준다 카모 난도 출감이 가까운데 말이다.”

도란도란 입김으로 나누는 말소리가 시우 귀에 다습다. 몇 명이 같은 감방에 있게 될는지,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 수감될는지 모를 다정한 얼굴을 시우는 눈여겨보았다. 강도·절도·사기·살인, 각각 이마뺨에 눈에 띄지 않는 핏말을 붙이고 그들은 겨울잠을 즐기는 두더지 꼴로 영겨 있었다.

“젊은 친구, 이쪽으로 와. 거긴 더 추울걸.”

개팔자를 이야기한 죄수가 떨어져 앉은 시우에게 말을 던졌다. 구레나룻 시켜면 그는 토지 사기범이었다.

시우는 빙긋 웃어 보이곤 다시 쇠창살 밖으로 눈을 주었다. 버즘나무 가지에 매달린 고깔 열매가 눈을 맞고 있었다. 시우는 산타클로스 모자가 생각났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오고 있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가족이 쌀밥에 고기반찬을 먹겠거니 여겨졌다. 그리고 형은 지금쯤 눈을 맞으며 저 어디 화곡동이나 봉천동 신흥 주택 지대를 싸돌며 식품점 벌일 점포를 물색하고 다닐 터였다. 그렇게만 되면 을숙이도 내년이면 맞춤형 중학 교복을 입고 뽀넬 터였다.

시우 마음은 어둡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 과자며 음료수, 채소, 과일, 각종 일용품이 진열된 상점이 떠올랐다. 점포 이름은 고향 이름 그대로 백암 상회라 붙이겠다고 형이 말했다.

철창을 올려다보던 시우가 갑자기 말 울음소리로 웃었다.

그 묘한 웃음소리를 듣고 동료 죄수들 눈이 그에게 쏠렸다.
 개팔자를 이야기한 죄수가 시우를 보며 시큰둥 한마디 했다.
 “저건 웃는 게 아니구먼. 웃음도 여러 질이여. 저 상판 봐여.”

→ 해당 선지를 정답으로 하는 지문의 일부입니다. 보시면 전부 서술이 '시우'라는 인물에 맞춰져있죠? 서술의 초점이 특정 인물(시우)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2011학년도 수능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대상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식이 드러난다.

→ 맞서 싸우는 느낌이면 됩니다. 고난을 극복하거나 특정 대상을 싫어하거나 지양하는 등의 경우처럼요.

15.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A]는 [B]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감을 조성한다.

→ 대구법처럼 통사 구조가 유사할 수도 있고, 단순히 어미나 글자가 반복될 수도 있어요. 딱 보고 비슷하게 생긴 문장들 열거되어 있으면 '유사한 구절 병치'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③ [B]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입체감을 부여한다.

→ 두 가지 감각이 혼용되는지 찾아 봅시다. A라는 감각을 표현하기 위해 B라는 감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ex) 차가운 소리 : 촉각 + 청각

⑤ [B]는 [A]와 달리 의성어를 통해 구체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

→ 의성어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죠?

ex) 사각사각, 우당탕탕 등

27.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 답정너 물음! 이 선지의 경우에는 이미 좋으면서 '얼마나 좋은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네요. 얼마나 좋은지 진짜로 묻는게 아니에요.

② (가)와 (다)는 색채의 대비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그냥 색채어가 두 개 이상 보이면 일단 넘겨도 무방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일반적인 의미의 '대조'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 꼭 파랑 - 빨강 / 검정 - 하양처럼 반대 색깔이 아니어도 색채 대비라고 볼 수 있어요. 성탄제에서 '어두운 방안 - 빠알간 촛불'도 색채 대비로 보듯이요.

③ (나)와 (다)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 앞에서 다 봤죠? 스스로 써봅시다. 모르면 찾아보기.

④ (가)~(다)는 풍자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역시나 스스로.

⑤ (가)~(다)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사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밤-낮 / 오전-오후/ 계절 변화 등이 드러나면 충분히 허용 가능합니다.

29. [A]와 [C]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C]는 [A]와 달리 의인화를 통해 봄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이죠? 감정이나 특정 행위!

40.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외양을 상세하게 묘사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외양을 TMI처럼 써놓은 걸 찾읍시다. 희화화는 웃기게 표현하는 것.

‘콩알 하나 없으니 주린 처자를 어이할꼬? 어쩔든 협사촌의 서대주가 도적들과 아래위 낭청을 다니며 함께 도적하여 부유하다 하니 찾아가 얻어 보리라.’

하고 협사촌을 찾아간다. 허위허위 이 산 저 산 어정어정 걸어가며 생각하되,

‘이놈이 본디 큰 쥐로 도적질하는 놈이니 무엇이라 부를꼬? 쥐라 해도 좋지 않고, 서대주라 해도 좋지 않으니, 이놈 부르기 어렵구나. 어쩔든 대접함이 으뜸이라.’

길을 재촉해 협사촌을 찾아 서대주 집 문 앞에서 장끼 큰기침 두 번 하고,

“서동지 계시오?”

하며 찾으니, 이윽고 시비 쥐 나오거늘 장끼 문왈,

“이 댁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관리하시는 서동지 댁이오?”

물으니 시비 답왈,

“어찌 찾으시오?”

장끼 가로되,

“잠깐 뵈오리다.”

이때 서대주 자녀의 재미 보며 아내와 함께 있더니, 시비 와서 왈,

“문전에 어떤 객이 왔으되 위풍이 현앙(軒昂)*하고 빛갓 쓰고 옥관자 붙이고 여차여차 동지 님을 뵈러 왔다 하나이다.”

서대주 동지란 말을 듣더니 대희하여 외현으로 청하고, 정주(頂珠) 탕건 모자 쓰고 평복으로 나아가 장끼를 맞아 예하고 자리를 정하니, 장끼 하는 말이,

“댁이 서동지라 하시오? 나는 양지촌 사는 화충이라고도 하고, 세상에서 부르기를 장끼라고도 혹 평이라고도 하는데, 귀댁을 찾아 금일 만나니 구면처럼 반갑소이다. 한 번도 빈적 없으나 평안하시었소?”

서대주 맹랑하다, 탕건을 어루만지며 답왈,

“존객의 이름은 높이 들었더니 나를 먼저 찾아 누지에 와

주시니 황공 감사하오이다.”

장끼 답왈,

“서로 찾기에 선후가 있는 것 아니니 아무거나 반갑다 못하여 진저리 나노라.”

하거늘 서대주 웃으며 온갖 음식으로 대접하고 고금사를 문답하며 장끼를 조롱하며 벗하더니, 장끼 콧소리를 내며 말하기를,

“서동지께 청할 말이 있노라. 내 본시 넉넉지 못해 오늘까지 먹지 못하다가 처음 청하온데 양미 이천 석만 빌려주시면 내년 가을에 갚으리니 동지 님 생각에 어떠시오?”

서대주 웃으며 하는 말이,

“속담에 ‘우마(牛馬)도 초분식(草分食)하고, 산저(山猪)도 갈분식(葛分食)이라*.’ 하였거든 우리 사이에 무엇이 어려우리오?”

→ 여기서 보면 시비가 장끼의 외양(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서술자가 서대주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물의 겉모습을 어느 정도 서술자가 드러내주는 것이 상세한 외양 묘사입니다. 의외로 ‘상세한’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저 지문이 2020 학년도 9월 모의고사 지문인데 저 정도의 묘사도 상세하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보인다면 인물의 겉모습을 서술자가 묘사하는지부터 간단히 찾아봅시다.

② 내적 독백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 내적 독백은 속으로 하는 혼잣말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서술한다는 느낌. 시간의 흐름을 지연하는 것은 그런 서술을 늘려서 질질 끄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지연한다는 내용이 담긴 선지는 높은 확률로 정답은 아닐 겁니다.

③ 현재와 과거를 교차 서술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작품의 시간적 흐름, 맥락부터 떠올려야 합니다. 역순행적 구성, 액자식 구성 등을 같이 짐작해도 좋습니다.

4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은 ‘형’의 내면 풍경을 보여 준다.

→ 인물의 심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⑤ ㉣은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 슬픈 분위기! 인물이 특정 상황에서, 혹은 특정 사건을 겪고 힘들어하거나 슬퍼하는지 우선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물이 말 그대로 슬픈 사건을 겪는지도 같이 확인해야겠죠?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가)~(다)에는 대립적 가치가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다.

→ 인물이 지향하는 것, 혹은 인물과 대립하는 것 +-관계를 잡으면 편합니다. 시라면 화자가 지향 VS 화자가 비판 소설이라면 주인공 VS 반동 인물의 구도로 생각하면 좋겠네요.

21. [A]와 [B]에 나타난 공통된 표현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문답 형식을 통해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묻고 답하는 겁니다.

②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 오감과 관련된 시어를 찾아야 합니다.

3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장면이 연결되고 있다.

→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지 묻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 역순행적 구성, 교차 서술 등)

④ 인물 간의 우호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 주인공을 기준으로 '주동인물(주인공 편) vs 반동인물(주인공 상대편)'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자점이 심복을 보내 거짓 조서를 전하고 옥에 가두니, 경업이 옥에 갇혀 생각하되,

‘세자와 대군이 어찌 내 일을 모르고 구치 아니시는고?’

하며 주야번민하여 목이 말라 물을 찾는데, 옥졸이 자점의 부촉(咐囑)*을 들은 고로 물도 주지 아니하여 경업이 더욱 한 하더니, 전옥(典獄) 관원은 강직한지라 경업의 애매함을 불쌍히 여겨 경업더러 왈,

“장군을 역적으로 잡음이 다 자점의 흉계니, 잘 주선하여 누명을 벗으라.”

경업이 그제야 자점의 흉계로 알고 통분을 이기지 못하여 바로 몸을 날려 옥문(獄門)을 깨치고 궐내에 들어가 상을 뵈고 청죄한데, 상이 경업을 보시고 반겨 가로되,

→ 2019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임장군전의 일부입니다. 경업과 자점이 대립적 관계라는 것 바로 눈에 띄시죠? 자점이라는 인물이 경업을 역모로 몰아서 감옥에 갇히게 했고, 그걸 보고 ‘통분을 이기지 못’하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런 식으로 갈등이 드러나고 VS 구도의 느낌이 나면 대립적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⑤ 장소의 변화에 따라 갈등이 해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말하는 거겠죠?

4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초월적 인물을 통해 주인공의 운명이 예고되고 있다.

→ 탈인간적인 인물입니다. 뭐 용왕이나 부처, 신, 옥황상제 이런 인물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특히 고전 소설에서는 천상계의 인물이면 대부분 허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③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사건 전개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 평가원 시험지 기준으로 두 줄을 잘 넘기는 일이 없고 코마가 서너 개 이상 드러나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일단 이 ‘간결한 문체’라는 선지가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잘 없긴 한데, 특히 고전소설에서는 간결한 문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버스의 덜컹덜컹이 좀 덜해졌다. 버스의 덜컹덜컹이 더하고 덜하는 것을 나는 턱으로 느끼고 있었다. 나는 몸에서 힘을 빼고 있었으므로 버스가 자갈이 깔린 시골길을 달려오고 있는 동안 내 턱은 버스가 쟁쟁거리는데 따라서 함께 덜그럭거리고 있었다. 턱이 덜그럭거리릴 정도로 몸에서 힘을 빼고 버스를 타고 있으면, 긴장해서 버스를 타고 있을 때보다 피로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열린 차창으로 들어와서 나의 밖으로 드러난 살갓을 사정없이 간지럽히고 불어 가는 유월의 바람이 나를 반수면 상태로 끌어넣었기 때문에 나는 힘을 주고 있을 수가 없었다. 바람은 무수히 작은 입자(粒子)로 되어 있고 그 입자들은 할 수 있는 한 욕심껏 수면제를 품고 있는 것처럼 내게는 생각되었다. 그 바람 속에는 신선한 햇살과 아직 사람들의 땀에 뻘 살갓을 스쳐보지 않았다는 천진스러운 저온(低溫), 그리고 지금 버스가 달리고 있는 길을 에워싸며 버스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산줄기의 저편에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금기, 그런 것들이 이상스레 한데 어울리면서 녹아 있었다. 햇빛의 신선한 밝음과 살갓에 탄력을 주는 정도의 공기의 저온, 그리고 해풍(海風)에 섞여 있는 정도의 소금기, 이 세 가지만 합성해서 수면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지상(地上)에 있는 모든 약방의 진열장 안에 있는 어떠한 약보다도 가장 상쾌한 약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 세계에서 가장 돈 잘 버는 제약회사의 전무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조용히 잠들고 싶어 하고 조용히 잠든다는 것은 상쾌한 일이기 때문이다.

→ 네.. 딱봐도 전혀 간결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3줄이 넘어가거나 섹스가 2~3개 이상 나오면 거르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④ 사건을 생동감 있게 서술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단순히 '~했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묘사가 자세하고 리얼하면 허용 가능합니다.

⑤ 독백과 대화의 반복적 교차로 인물의 내면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 혼잣말과 큰 따옴표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대사는 거의 큰 따옴표로 드러납니다.

201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 아무말 대잔치처럼 서술하는지 확인하고 인물의 심리나 태도같은 것들을 확인합니다. 인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③ 현재와 과거를 교차 서술하여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순차적 서술이랑 반대되는 말입니다. 액자식 구성 같은 것들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④ 서술자를 교체하면서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 말 그대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 바뀌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1인칭)' → '김철수는 ~(3인칭)' 이런 식으로 서술 대상의 호칭이 갑자기 바뀌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실전적입니다.

⑤ 풍자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 비꼬는 것 처럼!

3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시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시간적 배경부터 체크하기.

②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주고 있다.

→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는지 확인합니다.

③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서로 모순되는 말(표현)인 것 아시죠?

④ 영탄적 어조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뒤에 느낌표를 붙일 수 있으면 충분히 허용 가능합니다. 가장 쉬운 건 '아아', '어즈버'처럼 감탄사를 찾는 방법입니다. 또, 수사 의문문(≒ 설의법)도 영탄적 표현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니, 직접적인 감탄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의문형 종결 어미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전적 문학 개념어 심화

2012학년도 수능

3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② 대조적 소재의 열거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두 가지 이상의 소재들에서 'VS 구도'의 느낌이 나야합니다. 그리고 그 소재들이 붙어서 나와야겠죠. '열거'이니깐요.

33.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나)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빈번히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오감이죠? 눈에 보이는 것처럼 묘사한다던지 이런 것도 허용 가능합니다. 시각이니깐요. 소리로 묘사하면 청각.. 이런 것도 다들 아시죠?

- ② (가)는 (나)와 달리 의성어의 변화로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 소리를 묘사하는 '음성 상징어'입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연을 구분하지 않고 성찰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거나 후회하는 느낌이면 일단 허용합니다. 거기에 반성이나 부끄러움까지 드러나면 거의 완벽하죠.

* 어조라는 개념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냥 ~적 어조에 '~가 시상과 관련된 단어(애상적, 비판적, 성찰적 등)라면 그 시상이 드러나는지만 파악한다는 생각으로 판단하셔도 괜찮습니다.

* 어조를 판단하는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방법은 종결 어미와 화자의 태도, 시적 분위기를 함께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찰적 어조라면 기본적으로 '성찰적 태도'가 드러나야겠죠.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 의인화를 물어보네요. 일반적으로 자연이 말을 하거나 감정을 느끼거나,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면 허용 가능합니다.

최고봉은 평평하게 퍼지고 넓어서 그리 아찔해 보이지는 않았으나, 위로는 별자리에 닿을 듯하고 아래로는 세상을 굽어보며, 좌로는 부상(扶桑)*을 돌아보고 우로는 서쪽 바다를 접했으며, 남으로는 소주와 항주를 가리키고 북으로는 내륙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리고 옹기종기 널려 있는 섬들이 큰 것은 구름 조각 같고 작은 것은 달걀 같아 놀랍고 괴이한 것들이 천태만상이었다.

→ '최고봉'이라는 자연물이 '굽어보고', '돌아보고', '끌어당기'는 행동들을 하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는 행동들에 비유한거죠. 그러므로 의인화, 사람처럼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엄밀하게는 다르지만, 수능에 한해서는 '활유법'과 '의인법'을 강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인격을 부여한다, 생명력을 부여한다 등 모두 같은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예시도 사실 활유법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수능에서는 활유와 의인을 크게 구분하지 않으므로, '의인법 = 무생물을 생물(사람)처럼 표현'이라고 보아도 실전에서 문제푸는 데에는 큰 무리 없을 것입니다.

* 활유법과 의인법은 크게 구분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나 아니냐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를 볼게요. '나무가 날개짓을 한다.' 사람은 날개짓을 할 수가 없고, 날개짓을 하는 것은 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시는 활유법이 됩니다.

- ②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대화체는 말 그대로 '대화'하는 말투입니다. 혼잣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넘어갑시다. 헛갈릴 땐 임의의 청자가 있는지 확인하면 편해요. 누구 부르거나 하는 등의 표지가 있으면 더 좋겠군요. 독백체는 청자 없이 혼잣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조성하고 있다.

→ 색깔부터 찾읍시다. 빨주노초파남보 이런 거 있죠? 단, 시어 자체가 색을 담고 있어도 충분히 허용 가능합니다. 근데 앵간하면 색깔로 줄거예요.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음성상징어.. 의태어는 동작이나 모양 같은 것을 묘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4. (가)와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구조가 유사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시상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 대구법을 떠올려줘도 무방합니다.

② (나)는 화자의 시선이 자신의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자기 정서나 내면을 보여주다가 밖에 있는 대상을 보는 식으로 시상이 전개되면 일단 맞다고 판단하고 넘어갑시다.

③ (가)는 제5행에서, (나)는 제3연에서 시상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

→ 시상이 바뀌어야해요. 고난 - 희망 이런 식으로요. 화자의 정서나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또, 담화 표지어인 '그러나', '하지만'과 같은 표현이 있는지 찾아보면 좋아요

⑤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완결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어 내고 있다.

→ 1연과 마지막 연이 비슷한지 바로 체크합니다.

26.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를 통해 시간의 역전을 보여주고 있다.

→ = 역순행적 구성, ↔ 시간순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때는 현재 - 과거 이런 식으로 뒤바뀌는지 확인해본다는 생각을 떠올립니다.

③ 서술자가 사건을 이야기 속에서 전달하다가 이야기 밖에서 전달하고 있다.

→ 서술자의 시점이 변화했는지 물어보네요. 1인칭 → 3인칭 확인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⑤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관찰자 시점인지에 대한 물음이네요. 서술자가 작중에 드러나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아니면 3인칭 시점이겠습니다. 추가로, 객관적으로 전달해야하기 때문에 서술자의 감정 및 생각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서술자의 직접 개입으로 인물의 성격을 희화화하고 있다.

→ 인물의 발화나 생각이 아니라 '서술자가 직접 드러나야 합니다. 주로 3인칭에서 많이 나오고 (엄밀히 따지면 다를 수 있지만) 편집자적 논평과 똑같이 처리해도 됩니다.

* 서술자 개입과 편집자적 논평은 엄밀히 따지면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는 서술자의 주관이 꼭 드러나지 않아도 되지만, 후자는 서술자가 자신의 주관을 드러내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수능에서 이 두 개념을 세세히 구분하는 문제는 잘 출제하지 않아요.

③ 순차적 사건 진행으로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시간 순서대로, 사건이 일어난 대로 흘러가는지 확인합니다.

④ 우의적 소재를 활용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뭔가를 빗대는 소재입니다. 비유와 비슷한 개념어입니다.

2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 '동일한 시행'이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③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말 그대로 공간 자체가 대비되어야 합니다. 장소 같은 것들이요.

⑤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반어를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발화의 함의와 표면적 의미가 반대되어야 합니다.

3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④ (가)와 (나)는 선경후정의 구조를 통해 삶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 먼저 경치를 묘사하고 후에 정서를 드러내야합니다. 쉽게 말해서 화자가 먼저 외적 대상(주로 경치)을 보고 뒤에 반응(정서 등)을 드러내는 겁니다.

해수살 피어
이윽한 후,

머흠 머흠
꿀을 옮기는 구름.

길경(桔梗) 꽃봉오리
흔들려 씻기우고.

차돌부리
축 축 죽순(竹筍) 돋듯.

물 소리에
이가 시리다.

얹음새 갈히여
양지 쪽에 쪼그리고,

서러운 새 되어
흰 밥알을 쫓다.

→ 해, 구름 등의 대상들을 먼저 포착한 후 '서러운'이라는 화자의 반응(정서, 감정 등)을 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외적 대상을 먼저 포착, 묘사한 후 화자의 반응이 드러나는 게 선경후정입니다.

⑤ (나)와 (다)는 감정을 절제한 표현으로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대놓고 감정을 드러내는 '슬프다', '기쁘다'와 같은 말부터 확인하고, 감탄사 같은 것이 있으면 보통 절제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8. [B]와 [C]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B]의 중장은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자연과의 일체감을 강조하고 있다.

→ 설정된 청자가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화자랑 같이 있든 말든 상관 없습니다. 거기에 대상을 부른다면?! 바로 판단할 수 있죠.

③ [C]의 초장은 시각과 청각 이미지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눈에 보이는 것·색채어(색깔) / 소리 관련된 시어부터 찾읍시다.

④ [C]의 중장은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답정너인 물음! 의문형 종결어미부터 찾읍시다.

⑤ [B]와 [C]의 중장은 화자가 직접 등장하여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나'가 대놓고 드러나는지 봅시다.

4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②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병치하고 있다.

→ 어벤저스 엔드게임처럼, 동시에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을 하나씩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예시를 들게요. 서울에 있는 철수는 10시에 친구들이랑 밥을 먹었고, 부산에 있는 영희는 10시에 도서관에서 공부했다고 칩시다. 그럼 서울에 있는 철수가 밥 먹는 장면을 보여 주고 바로 넘어가서 한편 영희는~ 이런 식으로 같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인 영희가 도서관에서 공부했다는 장면을 이어 붙여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③ 사건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 사건을 하나의 장면으로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간결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느낌입니다. 주로 인물의 발화나 편지 등의 '소식'을 전하는 형태로 많이 드러납니다. 혹은 서술자가 인물의 생애를 짧게 제시하는 방법으로도 많이 드러납니다.

④ 상상적 공간을 배경으로 삼아 허구성을 강화하고 있다.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2013학년도 수능

13.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1인칭 시점인지 확인합니다.

- ③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통해 불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주인공 VS 반동 인물’처럼 VS 구도가 드러나면 됩니다.

17.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입체적 구성이 무엇인 아시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시간의 역전, 역순행적 구성, 액자식 구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적절한 선지일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서 시간이 없다면 우선 제쳐 놓고 보시는걸 추천합니다.

→ 오히려 이런 선지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답을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 ⑤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말 그대로 서술해주는 사건, 장면들이 자주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도 높은 확률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3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치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 문장 구조가 뒤집혔는지 확인해 봅시다.

- ② 명령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출한다.

→ 명령형 어미부터 찾아봅시다.

- ③ 색채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환기한다.

→ 색채어 대비와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색깔을 나타내는 단어부터 찾아야 해요.

- ⑤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

→ ‘동일한’ 어구와 다르단 사실을 기억합니다.

34.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③ 고향의 특정 인물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시상을 반전시키고 있다.

→ 정서나 태도가 (어지간하면 180도) 바뀌는지 생각해 봅시다. <절망, 체념 → 극복 의지, 희망> 이런 식으로요.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4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적 독백을 통해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속으로 하는 혼잣말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대화’랑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 ④ 구체적 시대 상황을 설정하여 내용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직접적인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야합니다. 6·25전쟁이나 일제강점기, 민주화 운동 시기 등이요.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고 관련 소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시대를 나타내는 단어를 바탕으로 이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EX) 중공군, 인민군 = 6·25 / 순사, 독립투사 = 일제강점기 등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B형

34.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사건의 압축적 제시와 대화 장면의 제시를 통해 사건 전개에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 사실상 요약적 제시와 같은 말입니다. 사건을 하나의 장면으로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짧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때 대사가 응을 데리고 신통한 술법을 의논하더니 이러구러 삼 년이 되었는지라.

→ 여기서처럼 ‘삼 년’이라는 시간 속에 있었던 사건들을 장면으로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구러 삼 년이 되었는지라’와 같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건의 압축적 제시입니다.

그해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다 단념하곤 하였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맘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그 체 장수 영감은, 서른여섯 해 전 남사당을 꾸며 와 이 화개 장터에 하룻밤을 놓고 갔다는 자기의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었다는 것과, 계연은 그 왼쪽 콧바퀴 위의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더라는 것을, 통정하노라면서, 자기의 같은 왼쪽 콧바퀴 위의 검정 사마귀까지를 그에게 보여 주었다.

→ 앞의 예시보다는 긴 편이지만, 역시나 ‘그해 아직 봄이 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간결하게 줄여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줄거리 보여 주듯이 요약·압축하는 것입니다.

- ④ [A], [B] 모두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현실의 비극성을 드러내고 있다.

→ 서술자가 직접 ‘자기의 주관’을 드러내야 합니다. 일단 편집자적 논평도 서술자 개입이기 때문에 서술자 개입으로 볼만한 것들을 먼저 찾아봅시다. 그리고 서술자의 가치 판단이 드러나면 편집자적 논평이 맞습니다.

→ 앞서서도 말했지만, 평가원은 편집자적 논평과 서술자 개입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서술자 개입과 다르지 않다고 간주하고 문제를 푸셔도 무방합니다.

“네가 낫고?”

“내가 흥부요.”

“흥부가 뭐 아들인가?”

“애고 형님, 이것이 웬 말이오? 비웁니다. 형님 전에 비웁니다. 세 끼 굶어 누운 자식 살려 낼 길 전혀 없으니 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양단간에 주시면 품을 판들 못 갚으며 일을 한들 못 갚을까. 부디 옛일을 생각하여 사람을 살려 주오.”
애걸하니, 놀부 놈의 거동 보소. 성난 눈을 부릅뜨고 불을 치며 호령하되,

“너도 염치없다. 내 말을 들어 보아라.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않으며,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 네 복을 누굴 주고 나를 이리 보채느냐? 쌀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노적 헐며, 벼가 많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섬을 헐며, 돈이 많이 있다 한들 께에 가득 든 것을 문을 열랴.”

→ 여기서 보면 ‘놀부 놈의 거동 보소’라는 부분을 보면, 서술자 개입임은 쉽게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편집자적 논평을 허용하려면 여기에 서술자의 주관, 가치 판단과 같은 것이 드러나야 하는데, 여기서는 ‘놀부’라는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기 때문에 편집자적 논평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⑤ [A]는 세속적 공간을, [B]는 초월적 공간을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현실 VS ~현실(천상계 등)

4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앞부분 밑줄은 같이 했었죠?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구성한다는 말은 역순행적 구성처럼 사건을 시간 순대로 단편일률적으로 보여 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점에서 보여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

31.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구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강조하고 있다.

→ 대구! 기억나시죠? 한 번더 확인하고 갑시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고통과 설움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 밑줄 친 부분에서 모두 문장 구조가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구법 확인할 수 있겠죠?

② 계절의 흐름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시간적 흐름인데, 봄 → 여름처럼 계절이 지나가면 됩니다. 계절적 어휘를 먼저 체크하고 시상의 전개에서 계절이 변화하는지, 그 ‘흐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③ 사물의 의인화를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었죠? 가볍게 예시만 보고 넘어갑시다.

청천(靑天)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 날지 말고 너 말 들어
 한양성 내에 잠간 들러 부디 너 말 잊지 말고 웨웨터* 불
 러 이르기를 월황혼 계워 갈 제 적막 공규(空闌)에 던져진
 듯 홀로 안져 님 그려 츠마 못 살네라 흐고 부디 한 말을 전
 하여 주렴
 우리도 님 보러 밧비 ㄱ읍는 길이오매 전홀동 말동 하여라

→ ‘외기러기’라는 대상에게 화자의 말을 전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전달해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이
 죠? 외기러기는 사람의 말을 전해주지 못하는데 이 시에서는 화
 자가 자신의 말을 외기러기에게 전해달라고 합니다.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의인법의 예시입니다.

④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관념적인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공감각적 심상은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을 섞은 표현인거 다들 아
 시죠? 그리고 수능 문학에서 관념은 추상적인 대상이라고 간주해
 도 큰 문제 없습니다.

(예시)

사랑 = 관념
 신체 = 관념 x
 마음 = 관념
 표정 = 관념 x

이런 식으로요!

34.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역전적 시간 구성을 통해 인물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 역순행적 구성과 같은 말로 처리하고 넘어갑시다.

⑤ 현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판적인 지성인의 모습을 형상
 화하고 있다.

→ 있어 보이고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쓸데없는
 한자어 같은 것들이요. 느낌은 딱 수능특강 영어들 문장 생각해
 보시면 편해요.

택(宅)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사야 네 황화 그 무엇이랴
 웨는다 사자.

외골내육(外骨內肉) 양목(兩目)이 상천(上天) 전행(前行)
 후행(後行) 소(小)아리 팔족(八足) 대(大)아리 이족(二足) 청
 장(淸醬) 아스숙하는 동난지이 사오.

장사야 하 거북이 웨지 말고 게젓이라 하렴은.

→ 장사꾼이 ‘게젓’을 한자어, 어려운 말을 섞어가면서 표현하고 있
 습니다. 여러분도 게젓은 알지만 외골내육 양목이 상천 전행 후행
 소아리 팔족 대아리 이족 청장 아스숙하는 동난지는 모르죠? 저
 렇게 어려운 말을 섞어가면서 말하는 것이 현학적인 표현입니다.

38.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B 공통

①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반대로 말하는 것이죠? 이것도 예시만 보고 넘어갑시다.

황혼 속에 고향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흥미 있는 주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 다오.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심야 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 다오.
 확장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와
 고속도로를 달러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예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 다오.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 다오.
 놀라울 때는 다만
 ‘아!’라고 말해 다오.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 다오.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가문 날씨에 관하여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관하여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
 이야기해 다오.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 김광규 시인의 「상행」 중 일부입니다. 이 시를 보시면 전체적으
 로 반어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풀벌레 울음 같은 것들
 에 귀 기울이지 말고, 자동차 소리가 경쾌하다고 하는 부분, 생
 각을 하지 말고 여행이나 하고 침묵을 하라는 부분, 축구 경기나
 증권 시세와 같이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에서만 이야기하라는
 부분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보기>는 2014학년도
 4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김광규 「상행」지문에 함께 제시된 보기
 내용 중 일부입니다.

② 대화의 형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 기본적으로 청자를 설정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자의 반응이 드러나야 해요. 반면 '대화체'와 같은 것들은 청자가 있으면 되고 그 청자의 반응이 없어도 충분합니다. 쉽게 말해 구어체를 확인하면 된다는 것이죠. 두 개념이 헷갈리지만 잘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③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 말 그대로 오감과 관련된 표현들이 다양한지 확인해봅시다.

④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애상감을 심화하고 있다.

→ 화자의 정서가 대상의 정서랑 같은지 봅시다. 특히 대상이 사물인데 슬프다 기쁘다 이런 정서가 드러나면 감정이입이라고 볼 확률이 높아요. 물론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감정 이입을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 화자가 슬픈 상황에서 '새도 우는구나.'라고 한다면 '새'가 감정이입 대상이겠죠.

⑤ 명령적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명령형 어미!

꺾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꺾데기는 가라.

꺾데기는 가라.
동학년(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꺾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꺾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꺾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흠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 신동엽 시인의 「꺾데기는 가라」입니다. 여기서도 '~라'라는 명령형 어미를 통해 명령법, 명령형 어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B형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예화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 예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지의 경우에는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어떤 사건들, 그러니까 예시가 될만한 이야기들을 제시하는 것이겠군요.

④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켜 사건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역순행적 구성과 같은 의미로 두고 푸셔도 무방합니다.

3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 계절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계절과 관련된 소재(눈, 단풍 등)를 찾아봅시다.

⑤ (가), (나)는 모두 시적 공간의 탈속성을 내세워 이상향에 대한 화자의 동경을 드러낸다.

→ 속세와 떨어진 공간의 성격입니다. 고전시가에서는 주로 자연이 탈속성을 지녔어요. 인적이 드물거나 문명과 거리가 있는 대상을 찾아봅시다.

4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장면의 빈번한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어떤 느낌인지 다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높은 확률로 정답은 아닐 겁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요!

② 인물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현실에 대한 관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인물의 의식에 초점을 맞춘다는 말은 서술이 의식의 흐름대로 이루어지느냐는 말로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

→ 관념적 인식이라고 하면 역시나 추상적 인식입니다!

④ 회상을 통해 대조적 체험을 병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대조되는) 두 체험이 연달아서 제시가 되는지에 대한 말입니다.

* 특히 산문에서 '병렬적으로' 전개한다, 서술한다, 제시한다 이런 선지들이 있으면 높은 확률로 정답 선지가 아닙니다.

⑤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 전개의 양상을 다면화하고 있다.

→ 다각적으로 조명한다는 건 서술자(시각)를 바꿔가면서 서술한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높은 확률로 정답은 아닐 겁니다(그래도 100%는 없다는 점!).

2014학년도 수능 A형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액자 구조를 통해 상이한 이야기가 갖는 유사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액자식 구성을 떠올립니다.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게 액자식 구성이죠?

⑤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 역시나.. 병렬적으로 배치하는 그겁니다..

4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우화를 제시하여 글쓴이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우화! 동물이나 식물이 사람처럼 행동하며 현실 상황을 빗대는 이야기! 초등학교 때 보던 이솝우화 기억나시죠?

실전적 문학 개념어 - 김프

2014학년도 수능 B형

3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

→ 역시나.. 마찬가지로... 편집자적 논평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다르다고도 말씀드렸죠?

② 대립적인 두 인물을 배치하여 인물 간 갈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 주인공 VS 반동인물일 겁니다. 성격이 다른 두 인물이 드러나는 지 봅시다.

④ 내적 독백을 활용하여 난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속으로 혼잣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적 독백은 '대체적으로' 인물의 내면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그때 지문을 읽으면서 확인하고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버스의 덜커덩거림이 좀 덜해졌다. 버스의 덜커덩거림이 더하고 덜하는 것을 나는 턱으로 느끼고 있었다. 나는 몸에서 힘을 빼고 있었으므로 버스가 자갈이 깔린 시골길을 달려오고 있는 동안 내 턱은 버스가 경충거리는데 따라서 함께 덜그럭거리고 있었다. 턱이 덜그럭거리릴 정도로 몸에서 힘을 빼고 버스를 타고 있으면, 긴장해서 버스를 타고 있을 때보다 피로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열린 차창으로 들어와서 나의 밖으로 드러난 살갓을 사정없이 간지럽히고 불어가는 유월의 바람이 나를 반수면 상태로 끌어넣었기 때문에 나는 힘을 주고 있을 수가 없었다. 바람은 무수히 작은 입자(粒子)로 되어 있고 그 입자들은 할 수 있는 한 욕심껏 수면제를 품고 있는 것처럼 내게는 생각되었다. 그 바람 속에는 신선한 햇살과 아직 사람들의 땀에 밴 살갓을 스쳐보지 않았다는 천진스러운 저온(低溫), 그리고 지금 버스가 달리고 있는 길을 에워싸며 버스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산줄기의 저편에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금기, 그런 것들이 이상스레 한데 어울리면서 녹아 있었다. 햇빛의 신선한 밝음과 살갓에 탄력을 주는 정도의 공기의 저온, 그리고 해풍(海風)에 섞여 있는 정도의 소금기, 이 세 가지만 합성해서 수면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지상(地上)에 있는 모든 약방의 진열장 안에 있는 어떠한 약보다도 가장 상쾌한 약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 세계에서 가장 돈 잘 버는 제약회사의 전무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조용히 잠들고 싶어 하고 조용히 잠든다는 것은 상쾌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자 나는 쓴웃음이 나왔다. 동시에 무진이 가까웠다는 것이 더욱 실감되었다. 무진에 오기만 하면 내가 하는 생각이란 항상 그제 영똥한 공상들이었고 뒤죽박죽이었던 것이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았던 영똥한 생각을 나는 무진에서는 아무런 부끄럼 없이, 거침없이 해내곤 했었던 것이다. 아니 무진에서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찌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들이 나의 밖에서 제멋대로 이루어진 뒤 나의 머릿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듯했었다.

→ 한번 좀 보셨을 법한 지문인 「무진기행」입니다. 여기서 보면 '나의 내면 심리를 혼잣말하듯이 서술하고 있죠? 이런 것도 내적 독백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⑤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인물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 말 그대로 외양을 '묘사'해야 합니다. 생김새나 인상착의와 같은 것들요.

이때 우치 공중에서 두루 살피더니, 엄준이 엄연히 홍일산을 받고 천리백총마(千里白驄馬)를 타고 채의홍상(彩衣紅裳)한 시녀를 좌우에 벌이고 종자 백여 인을 거느리고 바야흐로 사냥을 하거늘, 우치 자세히 살펴보니 기골이 장대하고 신장이 팔척이요 낮빛이 붉고 눈이 방울 같으며 수염은 바늘을 묶어 세운 듯하니 곧 일대 걸물이라. 엄준이 추종들을 거느리고 이 골저 골로 한바탕 사냥하다가 분부하되,

“오늘은 각처에 갔던 장수들이 다 올 것이니 마땅히 소열 필만 잡고 잔치하리라.”

하는 소리 쇠북을 울림 같더라.

이때 우치 일체를 생각하고 나뭇잎을 훑어 신병을 만들어 창검을 들리고 기치를 벌여 진을 이루고, 머리에 쌍봉투구를 쓰고 몸에 황금 갑옷에 황색 비단 전포를 겹쳐 입고 천리오추마(千里烏騮馬)를 타고 손에 청사양인도(靑蛇兩刃刀)를 들고 짓쳐 들어가니, 성문을 굳게 닫았거늘 우치 문 열리는 진언을 염하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들어가며 좌우를 살펴보니 장려한 집이 두루 펼쳐졌고 사방 창고에 미곡이 가득하며 차차 전진하여 한 곳에 이르니, 전각이 굉장하여 주란화동이 반공에 솟았거늘, 우치 이윽히 보다가 몸을 변하여 솔개 되어 날아 들어가 보니, 으뜸 도적이 황금 교자에 높이 앉고 좌우에 제장을 차례로 앉히고 크게 잔치하며 그 뒤에 대청이 있으니 미녀 수백인이 열좌하여 상을 받았거늘, 우치 하는 양을 보려 하고 진언을 염하니, 무수한 수리가 내려와 모든 장수의 상을 건어 치워 가지고 중천에 높이 떠오르며 광풍이 대작하여 눈을 뜨지 못하고 그러한 운문차일과 수놓은 병풍이 움직여 공중으로 날아가니, 엄준이 정신을 진정치 못하여 뜰 아래 나뭇등걸을 붙들고 모든 군사가 차반을 들고 바람에 떠서 구르더라.

→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대상의 외양, 겉모습(생김새나 인상착의 등)을 묘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36. [A]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 시점에서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 객관적으로 묘사한다는 말로 보셔도 충분합니다.

④ 동일한 사건을 다각적으로 구성하여 사건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 놓는다.

→ 서술 시점을 바꿔가면서 동일한 사건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사건에 A라는 사람의 생각, B라는 사람의 생각 등 여러 인물의 심리를 보여주거나 그들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역시 높은 확률로 정답이 아닙니다.

4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나)는 (가)와 달리 시상이 전개되면서 역동적인 분위기가 정적인 분위기로 바뀐다.

→ 상대적으로 활동적인 상황에서 대상의 움직임이 줄어든 상황, 말그대로 정적인 분위기로 바뀐다는 겁니다. 시일 경우에는 대상의 움직임이 있다 없어지는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③ (가)는 하강의 이미지를, (나)는 상승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현실적 관심을 나타낸다.

→ 내려가는 것, 올라가는 것 /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약간의 팁입니다. 하강의 이미지는 대부분 부정적인 시어로 우울해지는 느낌을 받게 한다면 상승의 이미지는 대부분 긍정적인 시어로 활기차지거나 희망적인 느낌을 받게 해요.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31.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어체를 사용하여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존댓말을 사용하느냐입니다.

③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하여 상황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다.

→ 도치법이 쓰였는지 물어보는 것이네요. 앞뒤 문장 구조가 비정상적이어야 해요.

ex) 나는 밥을 먹는다. - 나는 먹는다. 밥을.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이 문장의 원래 형태는 '저녁이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가 되어야 하는데,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도치법 확인할 수 있네요.

⑤ 색채어를 활용하여 신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 색깔을 나타내는 시어나 특정 색과 연관된 시어를 찾아봅시다.

34.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 말 그대로 '어디'인지 찾읍시다. 장소같은 것들이요.

경자년(庚子年, 1600년) 늦봄, 최척(崔陟)은 주우(朱佑)와 함께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차(茶)를 팔다가 마침내 안남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일본인 상선(商船) 10여 척도 강어귀에 정박하여 10여 일을 함께 머물게 되었다.

→ 최척이라는 인물이 '안남(베트남)'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디에' 있는지, 공간적 배경을 알려주는 겁니다.

② 일상적 소재를 열거하여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보여 준다.

→ 대상을 별거 없이 쪽~ 나열하는 거면 충분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시 보았다. 농삿집치고는 유난히도 말끔한 마루청,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지 않은 장독대,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길칸 장다리꽃들…… 그 어느 것 하나에도 그녀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으리라 싶었다. 이러한 집 안팎 광경들을 통해서 나는 건우 어머니가 꽤 부지런하고 친절한 여성이라는 것을 고대 짐작할 수가 있었다. 젊음이 한창인 열아홉부터 악지 세계 혼자서 살아왔다는 것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아들 건우를 나룻배를 태워가면서까지 먼 일류 중학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농촌 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건우의 입성이 향시 깨끗했다는 사실들이 어련히 안 그러리 싶어지기도 했다. 얼핏 보아서는 어리무던한 여인 같기도 하지만 유난히 불가진 듯한 이마라든가, 역시 건우처럼 짙은 눈썹 같은 데선 그녀의 심상치 않을 의지랄까, 정열 같은 것을 읽을 수가 있었다.

→ 마루청, 장독대, 장다리꽃들과 같은 대상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③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의 양상을 드러낸다.

→ 편집자적 논평과 비슷한 말입니다. 동시에 서술자 개입이기도 하고요. 대신 서술자 개입과 다른 점은 서술자의 주관 여부입니다. 주관(가치평가 등)이 나타나면 서술자 논평(편집자적 논평)이고 그냥 서술자가 정보만 전달하는 등 말 그대로 '서술'만 해서 독자가 서술자의 존재를 인지하도록만 한다면 서술자 개입입니다.

⑤ 현재와 과거의 사실을 교차하여 향후 전개될 사건의 단서를 제공한다.

→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시간적으로 사실(사건도 되겠죠?)이 나타나는지 아닌지 판단합니다.

39.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운문체를 사용하여 인물 사이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 단순하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산문체)이 아니라 운율이 나 리듬감이 살아있으면 운문체입니다. 운율이나 리듬감이 판단의 핵심이 되겠네요.

③ 열거의 방식으로 인물의 외양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마찬가지로입니다. 열거가 뭔지 아시죠? 방금 했으니까요. 해학도 당연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예시로 확인할게요.

흥부 이 말을 듣고 형의 집에 건너갈 제, 치장을 불작시면, ㉠ 편자 없는 헌 망건에 박쫓가리 판자 달고 물렛줄로 당끈 달아 대가리 터지게 동이고, 깃만 남은 중치막, 동강 이은 헌 술 띠를 흥복통에 눌러 띠고, 떨어진 헌 고의에 칩 노끈 대님 매고, 헌 짚신 감발하고, 세살 부채 손에 쥐고, 서 홉들이 오망자루 꿩무니에 비스 차고, 바람맞은 병인 같이, 잘 쓰는 대비같이, 어스비스 건너 달아 형의 집에 들어가서 전후좌우 바라보니, 앞노적, 뒷노적, 멍에 노적 담불담불 쌓였으니, 흥부 마음 즐거우나 놀부 심사 무거하여 형제끼리 내외하여 구박이 태심 하니 흥부가 하릴없어 뜰아래서 문안하니 놀부가 묻는 말이,

→ 해당 선지가 묻고 있는 지문의 ㉠입니다. 흥부의 외양을 열거하여 웃기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⑤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서사를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 사건을 하나씩 다 보여주면서 서술하는게 아니고 서술자가 임의로 요약해서, 줄거리 말해주듯이 '~했고 ~했다' 이런 식으로 줄여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설명하고자 하는 사건을 하나의 장면으로 구성하지 않고 제시하는 것이죠.

→ 예를 들면, 철수와 영희가 대화하면서 영희가 갑자기 "어제 순이네 소식 들었어? 순이네 아버지가 로또에 당첨됐대!" 이런 식으로 제시한다고 가정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철수와 영희의 대화를 하나의 장면으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순이네 아버지가 로또에 당첨된 사건'을 '간단하게' 같이 전달하고 있죠.

→ 이런 식으로 사건의 요약적 제시는 장면으로 제시되지 않고, 간단하게 사건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인물의 발화나 서술자의 정리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3.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직유법을 사용하여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A같은 B', '사과같은 내 얼굴' 이렇게 특정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겁니다. 동일시하는 은유량은 조금 달라요.

⑤ 영탄적 표현으로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일단 '감탄사' 그 자체가 있는지 먼저 찾고 어떤 구절이 감탄이나 놀람 등을 표현하는지 찾아봅시다. 정 안되면 문장 뒤에 느낌표를 붙여서 감탄하는 느낌을 주면 허용하고 넘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B형

3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ex) '푸른 종소리'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 임의의 청자를 설정하고 그 청자를 부르는 등의 행위를 통해 청자에게 말을 건네야합니다.. 그 청자가 시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요.

② 반복과 점층적 표현으로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 점층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어떤 행위나 구절을 반복하면서 그것의 의미가 점점 강해져야(심화) 합니다. 혹은 범위가 넓어지는 것도 점층으로 봅니다. 예시로 보는 게 더 빠를거예요.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놓고 마음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 '눈은 살아 있다'라는 구절이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와 같이 '눈은 살아 있다'라는 구절의 의미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 '기침을 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기침을 하는 것인지 기침을 하는 행위의 의미가 강해지고 있죠?

③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 가까이에 있는 대상에서 먼 대상을 보는 겁니다. 대상을 포착한다는 것도 그냥 화자가 대상을 바라본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해요.

④ 토속어를 통해 화자의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방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지만, 지역 풍습이나 전통과 관련된 단어라도 보시면 돼요. 헛갈리면 방언 먼저 찾아보세요. 토속어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속어 : 어떤 지방의 고유의 정취가 느껴지는 말.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심정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 = 음성상징어

34. (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인물 간의 대화를 빈번히 제시하여 갈등을 해소시키고 있다.

→ 따옴표가 많은지부터 찾아봅시다.

③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중심 사건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간결한 문체에서는逗가 3~4개 이상 넘어가지 않고 평가원 시험지 기준으로 세 줄 잘 안넘어갑니다.

④ 역사적인 사건을 회고적으로 서술하여 시대 배경을 부각시키고 있다.

→ 되돌아본다, 회상한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과거의 일을 서술한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⑤ 장면의 잦은 전환을 통해 인물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다들 아시죠? 역시나 높은 확률로 정답은 아닐 겁니다.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B 공통

①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사건의 사실성을 높인다.

→ 주로 밤이나 낮 같은 시간을 의미하는데, 계절도 포함될 수 있어요.

②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한다.

→ 결국 순서대로 서술하지 않고 꿈-현실-꿈-현실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사건을 구성, 서술한다는 말인데 역시나 '입체적으로 구성'한다는 것 자체도 높은 확률로 정답이 아닐 겁니다.

④ 서술자의 개입과 인물의 발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 자주 나오네요.. 서술자 개입.. 독자가 서술자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직접 서술자가 드러나는 겁니다. 편집자적 논평이랑 엄밀히 말하면 다르지만, 역시나 비슷한 말로 받아들이셔도 큰 문제는 없다는 점!

4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가)와 (나) 모두 대조와 연쇄를 통해 생동감을 드러낸다.

→ 대조는 다들 아실 테고 연쇄는 꼬리를 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예시로 볼게요.

ex) 연쇄법 :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은) 기차....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B형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말 그대로 '이동'해서 위치·장소같은 공간이 바뀌어야 합니다.

- ②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첫 연과 끝 연 혹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같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유사하다는 것은 같거나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허용할 수 있습니다.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열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윈 산은 차가운 수묵(水墨)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신록이나 단풍,

꿀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윈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 김종길, 「고고(孤高)」 -

→ 해당 선지가 출제된 문제의 지문입니다. (가)와 (나) 둘 다 보시면 밑줄 친 부분에서 같은 구절이 반복되고 유사한 문장구조가 반복되어 앞과 뒤가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 ③ 어순의 도치를 통해 상황의 긴박감을 표현하고 있다.

→ 도치법 바로 떠올려 줍시다.

34.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② 주변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주인공의 행동과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 1인칭 관찰자 시점인지 묻는 거네요. '주변 인물'이니까 서술자가 작중에 드러나야겠습니다.

- ③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진술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1인칭 시점인지 묻는 겁니다. '자신의 체험을 진술'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긴 해요.

- ④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 관찰자 시점인지 물어봅니다. 또, 객관적이기 때문에 관찰자의 생각이나 정서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 ⑤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의 전지적 시점을 통해 갈등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전지적 작가 시점 바로 떠오르시죠?

2015학년도 수능 A형

3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③ 제2연에서는 명사로 연을 마무리하여 사물의 정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정적인 이미지! 움직임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 ⑤ 제4연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사물에 동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 사물의 움직임이 드러나야 해요. 역동적 이미지와는 달리 그 정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작이나 움직임 자체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古典)을 말하는 한 마리 호접(蝴蝶) 호접인 양 사뭇이 춤을 추라 아미(蛾眉)를 숙이고……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거문곶줄 골라 보리니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추어 흰 손을 흔들어서이다

→ 호접인 양 ‘춤을 추라’, 아미를 ‘숙이고’와 같은 부분에서 동적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청각을 촉각으로, ㉡은 촉각을 시각으로 전이시키고 있다.

→ 감각의 전이, 공감각적 심상이 있는지 물어보네요. 각각 청각의 촉각화, 촉각의 시각화를 물어봅니다.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B 공통

- ① 인물의 의식이 내적 갈등에 초점을 둔 서술 방식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인물 심리를 위주로 서술하는데 거기에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지 보면 되겠네요.

그러나 어느 결엔지 아사녀의 환영은 깜박 사라져 버렸다. 아까까지는 어렴풋이라도 짐작되던 그 흔적마저 놓치고 말았다. 아무리 눈을 닦고 돌 얼굴을 들여다보았으나 눈매까지는 그럴싸하게 드러났지만 그 아래로는 캄캄한 밤빛이 쌓인 듯 아득할 뿐. 돌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골머리만 부질없이 헝헝 내어 돌리었다. 그러자 문득 그 돌 얼굴이 굵실 움직이는 듯 하며 주만의 얼굴이 부시도록 선명하게 살아났다. 마치 어젯 밤의 아사녀의 환영 모양으로.

그 눈동자는 띠룩띠룩 애원하듯 원망하듯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다.

“이 돌에 나를 새겨 주세요. 네, 아사달님, 네, 마지막 청을 들어주세요.”

그 입술은 달짝달짝 속살거리는 것 같다.

아사달은 정을 권 채로 머리를 털고 눈을 감았다. 돌 위에 나타난 주만의 모양은 그의 감은 눈시울 속으로 기어들어 오고야 말았다. 이 몇 달 동안 그와 지내던 가지가지 정경이 그

림등 모양으로 어른어른 지나간다. 초파일 탐돌이할 때 맨 처음으로 마주치던 광경, 기절했다가 정신이 돌아날 제 코에 풍기던 야릇한 향기, 우레가 울고 악수가 쏟아질 적 불꽃을 날리는 듯한 그 뜨거운 입김들……. 아사달은 고개를 또 한 번 흔들었다. 그제야 저 멀리 돈짜만 한 아사녀의 초라한 자태가 아른거린다. 주만의 모양을 구름을 헤치고 뚱뚱 떠오르는 햇발과 같다 하면, 아사녀는 썰녘의 하늘에 반짝이는 별만 한 광채밖에 없었다.

물동이를 이고 치마꼬리에 그 빨간 손을 씻으며 배시시 웃는 모양, 이별하던 날 밤 그린 듯이 도사리고 남편을 기다리던 앓음앓음, 일부러 자는 척하던 그 가늘게 떨던 눈시울, 버드나무 그늘에서 숨기던 눈물들…….

→ 해당 발문의 지문이고, 이 문제의 정답 선지입니다. 보시면 아사달이 고민하는 심리와 그의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장면임을 알 수 있어요.

- ④ 물신주의에 빠진 세대가 탈속적 세계를 지향하는 인물의 비판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 인적이 끊기고 세상 물정과 거리를 두는 세계입니다. 고립된 느낌이라고 받아들여셔도 괜찮아요.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③ 언어유희를 통해, 이별의 현실을 수용하는 담담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① 발음의 유사성(라임)
② 비슷한 음운(라임)
③ 말 순서 바꾸기(도치)
④ 동음이의어

- ④ 의태어를 나열하여,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 음성상징어 중 동작이나 모양!

손이 뺨 위로 날았다. 앞가슴을 잡고 와락와락 흔들어 댄다. 서희 얼굴이 흠뻑으로 변한다. 울고 있던 봉순이,

→ 앞가슴을 잡고 흔들어 대는 행위의 모양을 묘사하는 의태어를 사용했습니다.

2015학년도 수능 B형

31.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② ㉡: 정치적 포부를 펼칠 만큼 높은 지위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돌려 말하기입니다.

ex) 창문 좀 열어줘 VS 교실이 좀 덥네

3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② ㉡에서는 인물이 현실의 경계를 넘어 초현실의 공간으로 진입해 가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

→ 고전소설에서 꿈 속 세계나 천상계, 용궁 등 비현실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은 첩첩하고 물은 중중한데, 잠자려는 새들은 숲으로 들어가 객회(客懷)를 자아내니 숙향이 갈 데 없어서 앉아서 울고 있었다. 문득 파랑새가 꽃봉오리를 물고 손등에 앉거늘 숙향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꽃봉오리를 먹으니 눈이 맑아지고 배가 불러 정신이 상쾌하며 몸에 향내 진동하더라.

일어나서 ㉡ 파랑새가 가는 대로 따라 두어 고개를 넘어가니 산골짜기에 한 궁궐이 있는데, 그 새가 큰 문으로 들어가거늘 숙향이 따라 들어갔다. 한 계집이 마중 나와 숙향을 안고 들어가 큰 전각(殿閣) 앞에 놓으니 한 부인이 머리에 화관(花冠)을 쓰고 황금 의자에 앉아 있다가 숙향을 맞아 팔을 밀어 동편 백옥 의자에 앉기를 청하거늘 숙향이 어찌할 줄 모르고 다만 울 뿐이었다.

부인 왈,

“선녀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더러운 물을 많이 먹었으니 정신이 바뀌어 전생 일을 모르나이다.”

선녀에게 명해 경액(瓊液)*을 드리라 한대 선녀가 만호잔에 호박대를 받쳐 이슬 같은 것을 부어 드리거늘 숙향이 받아먹으니 맛은 젓맛 같고 매우 향기롭더라. ㉢ 먹은 후에 천상의 일과 인간 세상에 내려와 부모 잃고 헤매며 고생한 일을 일일이 알게 되니 몸은 비록 아이나 마음은 어른이라. 즉시 일어나 부인에게 예를 표해 왈,

“첩은 천상에 득죄(得罪)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와 고초가 심하거늘 이다지도 불쌍히 여겨 대접하시니 지극히 감격하나다.”

“선녀께서는 저를 알아보시겠나이까?”

“인간 세상에 내려와 정신이 바뀌었사오니 자세히 아옵지 못하나다.”

“이 땅은 명사계(冥司界)요, 저는 후토 부인이니이다. 선녀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고생을 겪었으며 접때 잔나비와 황새를 보내 도와 드렸고 이번에는 파랑새를 보내었삽더니 보셨나이까?”

“다 보았사오나 부인의 하늘 같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사오니 부인의 시비나 되어 만분지일이나 갚사올까 바라나이다.”

부인이 정색하고 왈,

“저는 한낱 조그마한 신령이요, 그대는 월궁의 으뜸 선녀라. 비록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일시 고생을 겪었으나 그런 말을 어찌 하시나이까? 선녀 가실 곳이 또한 머오니 그 사이에 고생을 많이 겪을 것이오매 쉬어 내일 가소서.”

하고, 잔치를 배설하여 환대하니 음식과 보배 등이 극히 화려하더라.

숙향이 부인에게 왈,

“첩이 전일 듣사오니 명사계는 시왕(十王)이 계신 데라 하더니 그러하오이까?”

“그러하여이다.”

“그러하오면 시왕전이 어디오이까?”

“멀지 아니하오이다.”

“인간 세상의 부모가 난에 죽었으면 시왕전에 왔사올 것이니 반가이 만나 볼 수 있겠나이까?”

“그대 부모는 인간 세상에 반석같이 계시고 그들도 원래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니요, 봉래산 선관 선녀로서 인간 세상에 귀양 왔사오니 기한이 차면 봉래로 돌아갈 것이요, 이곳은 오지 아니하리이다.”

→ 마찬가지로 이 문제의 본문인 숙향전의 일부입니다. 읽어보시면 ㉡의 궁궐이 현실 너머의 초현실적 공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계절이 바뀌면서 얼음이 풀리는 강변 풍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눈에 보이도록! 색깔이 나와도 되고, 동작이나 변화같은 것들도 가능합니다.

- ② ㉡: 꿈이 있던 시절을 함께 회상할 사람이 없는 아쉬움을 설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설의법이나 묻는 겁니다.